

한국어 교수자의 문법용어에 대한 인식 연구*

안주호(순천향대)

〈 목 차 〉

- | | |
|----------------|----------------|
| 1. 문제제기 | 3.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 2. 선행연구 및 연구대상 | 4. 맺음말 |

1. 문제제기

한국어교육은 현장에서의 요구와 이론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야 발전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이 본격화 된 이래, 외국의 언어교수 이론을 도입하여 한국어교육에 적용해왔다. 그 결과 풍성한 언어교육 이론들이 이입되어 왔으나, 정작 한국어의 특성을 살린 교수 방법이 개발되지 않아서, 이론과 현장에서의 요구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생겼다. 그 중 하나가 문법교육 분야이다. 한국어교육 연구 중에서도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¹⁾ 예를 들면 한국어교육에서 필수적이고 토대를 이루는 표준화된 한국어 문법체계, 등급별 문법교수 요목에 대한 정비, 한국어교육에 맞는 문법용어, 주요 문법 사항에 대한 기술의 통일 등 중요한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한국어 교육문법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 중 하나로 한국어 교수자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0-327-B00589)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1) 매년 발표되는 한국어교육 논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문법교육 분야이다.(강현화 2011)

의 문법용어에 대한 인식과 선호하는 문법용어의 대역어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한국어 교육문법의 정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논저에서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되어 왔으며, 무엇보다 '한국어 교육문법의 표준안'과 문법용어의 통일성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²⁾ 그러나 연구의 부분 부분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되었지만,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가)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 조사
- (나) 학술논문에서 나타난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 조사
- (다) 학습자의 한국어 문법용어에 대한 대역어 선호 조사
- (라) 교수자의 한국어 문법용어의 대역어 선호 조사
- (마) 표준 한국어 교육문법을 위한 문법 사항과 대역어 제안

이 글은 이 중 (라)항에 속하는 것으로 한국어교육에 임하는 교수자들이 한국어 문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주요 쟁점이 되는 문법 항목의 영어 대역어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그간 한국어 문법용어가 교재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영어 설명을 통해 살폈고, 독특한 한국어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술논문을 통해 살핀 바 있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대상

2.1 선행연구

언어 교육에서 문법용어 제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영어교육을 대상으로 한 Mohammed(1996), Borg(1999, 2003) 그리고 Ur(1996) 등에서 논의되었

2) 이에 대한 대표적 논의를 꼽아보면 민현식(2003), 김재욱(2009), 강현화(2011), 방성원(2011), 정희정(2011)을 들 수 있다.

다. 문법교육에서 교수자가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한 전략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Ellis(1998)에서 논의되었다. 믿음, 지식, 이론, 태도 등과 같은 교수자의 요소들이 교수현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무엇보다 교수자의 인식이 언어교육에서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수자가 문법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왔는데, 대체로 문법용어 사용을 반대하는 큰 이유는 언어에 관한 명시적 지식은 언어의 유창성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문법용어는 언어학습에서의 문법-번역식 학습의 유산으로 문법용어가 학습에서 사용될 때, 학습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Eisenstein 1897) 이에 비해 문법용어 사용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선 Hutchinson(1987)은 문법책을 사용한 교실에서 품사나 시제와 같은 메타언어를 사용한 특별한 활동을 제공한 결과, 학습자에게 목표언어의 명시적이고 공통된 정보를 교수자와 공유하게 되어, 교수자와 학습자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한다.³⁾

한국어교재에서는 초급 학습자를 위해 본문과 어휘 등을 영어로 설명해 놓고 있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습자에게 영어는 일종의 메타언어와 같이 사용된다. 그런데 한국어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법용어는 교재마다 다르며, 이를 영어로 옮긴 경우에도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조사 {-은/는}은 교재마다 'marker, definitive, particle, topic particle, discourse particle'로, 선어말어미 {-었/았/였-}은 past tense marker, past tense infix, suffix, past tense-aspect forms, marker, tense maker 등으로 대역되고 있어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궁극적으로 한국어교육에서의 표준 교육문법(가칭)을 설정하고, 한국어 문법용어를 영어로 대역할 경우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려 하는 데, 교재에서 다양하게 대역된 용어를 중심으로, 교수자들의 선호양상을 살피려 한다. 한국어 문법용어를 중국어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3) Carter(1990 : 104)는 메타언어 사용은 언어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경제적이고 정확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들어 언어교육에서 문법용어의 사용을 지지하고 있다.

왕단(2008)에서 다루어졌으나, 주로 학교문법에서의 용어를 옹기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메타언어로 사용된 영어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의 계량적 연구는 안주호(2011나) 등에서 다루었으며, 이 외에도 교수자의 문법교육에 대한 의식 조사는 한송화(2010), 방성원(2011) 등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세부적으로 문법용어의 선호에 대한 연구는 없는 형편이다.

2.2. 연구 대상

교수자용 한국어 문법용어의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서울 소재의 A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는 교수자 12명, 경기도 안산에 소재하는 B대학기관에서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는 교수자 9명, 그리고 충남권 대학에 소재의 C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수자 35명과 D다문화 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수자 15명 등 총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서, 구체적 조사 일자와 명수는 <표 1>과 같다.

<표 1 : 피조사자인 설문대상자 수>

기관	A기관	B기관	C 기관	D기관
설문대상자 명수	12명	9명	35명	15명
설문 일자	2011.12.06	2011.12.08	2011.12.13	2011.12.09

이 연구는 논문 뒷면에 첨부해둔 설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I 부문]은 교수자의 한국어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려는 것이고, [II 부문]은 교수자가 한국어 문법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III 부문]은 학습자가 수업 중 사용했던 한국어 문법용어와 영어 대역어에 대한 설문이며, 마지막 [IV 부문]은 어미와 조사 등 한국어 문법 형태를 대역할 경우 무엇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교수자의 의견을 알고자 설계한 것이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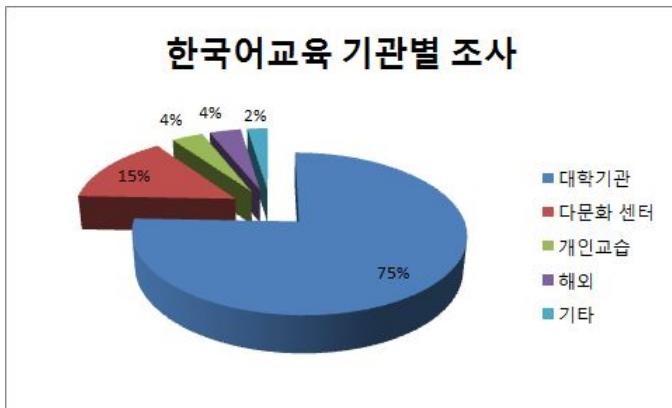
4) [I 부문]과 [II 부문]은 다소 변형을 하고, [III 부문], [IV 부문]은 같은 내용의

3. 조사 결과 및 시사점

3.1.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

먼저 피조사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인 [I 부문] 중 [I 1]은 이들의 한국어 경력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1년 미만인 2명, 1년-2년이 4명, 2년 이상이 12명 그리고 3년 이상이 53명이라는 답변이 나와서 대부분 경력 3년차 이상의 한국어 교육자이다. 따라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에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피조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를 가르친(가르치고 있는) 기관을 묻은 [I 2]는 복수대답이 가능한 것으로 대학 기관이 62명, 다문화센터 12명, 개인교습이 3명이며, 해외에서 가르친 경험이 4명, 그리고 기타로 어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에서 가르친(가르치고 있다)고 답한 피조사자가 2명이 있다.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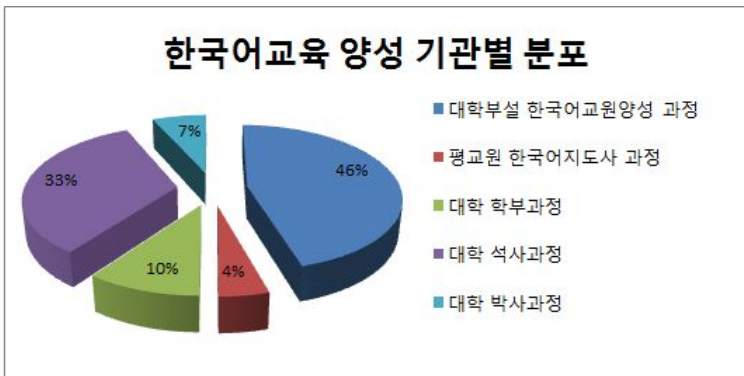


질문 [I 3]은 주로 가르치는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어권 7명, 중국어권 61명, 일본어권 7명 그리고 기타로는

로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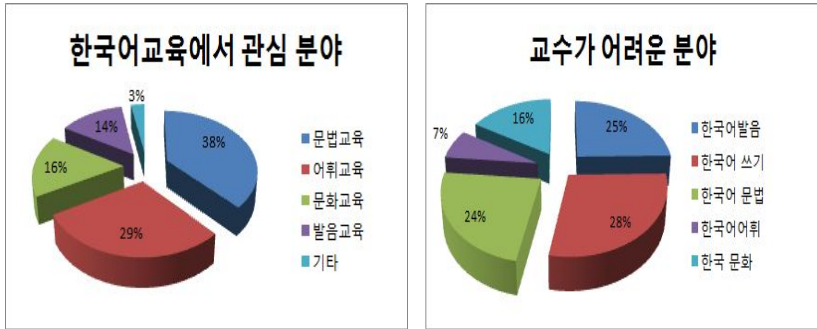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스페인 등으로 중국어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수자의 학력 수준은 석사재학생 10명, 석사졸업 40명, 박사과정생 13명, 박사 이상이 4명이며, 학사 출신이 1명으로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자들이며, 한국어교육을 받은 곳은 복수대답이 가능한 질문이었는데, <표 3>과 같이 대학부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 41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표 3>



피조사자가 가능한 외국어는 복수 응답이 가능한 것으로 영어 35명, 일본어 8명, 중국어 30명, 기타 9명인데, 이 중에는 스페인어와 러시아 등이 포함되었다. 한국어교육 중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능 영역 중에는 ‘말하기 > 쓰기 > 읽기 > 듣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문법교육 > 어휘교육 > 문화교육 > 발음교육’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로는 ‘문학교육, 교재개발, 평가’ 분야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교육 중 교수 시에 가르치기 어려운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기(24명), 발음(21명), 한국어 문법(20명), 어휘(6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능 영역에서는 ‘쓰기(25명) > 듣기(3명) > 말하기, 읽기(각 1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속담과 관용어와 같은 부분을 가르치기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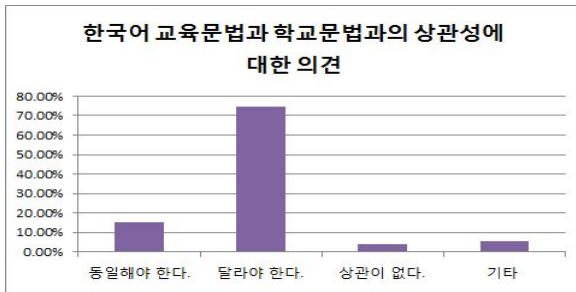
수업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어로는 영어가 44명, 일어가 1명, 중국어 23명이며, 그 외에 한자나 스페인어 등을 이용한다는 기타 의견이 8명이 있었다. 교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재는 '서울대 교재(31명) > 경희대 교재(23명) > 연세대 교재(12명) > 서강대 교재(9명) > 고려대 교재(3명)'으로 서울대 교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로는 '선문대, 성균관대, 건양대'와 같은 기관교재나,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어, easy Korea 등을 사용한다는 의견이 모두 22명으로 나타났다. 교수자가 사용하는 교재에 따라 교실현장에서 사용하는 문법용어와 체계가 다를 수 있는데, 서울대 교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교수자의 문법용어 사용에 대해 이 교재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3.2 한국어 교수자의 문법 의식도

[Part II]은 한국어 교수자들의 문법용어 사용 실태와 의식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II 1]은 한국어 교육문법을 설정하기 위한 논쟁 중의 하나인 한국어 교육문법과 국어교육의 학교문법이 동일한 체계를 가져야 하느냐, 다른 체계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교수자들이 학교문법과 한국어 교육문법이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11명인 반면, '달라야 한다.'는 의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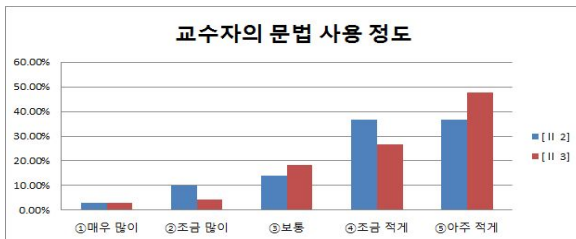
53명, 그리고 ‘상관이 없다’는 의견이 3명이며, 기타로는 ‘체계는 동일한 것이 좋으나 문법용어나 접근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가급적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4명을 차지했다. 한국어 교육문법과 학교문법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자 대부분들은 달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어 교육계에서의 표준 교육문법을 설정할 때 참조해야만 할 것이다.⁵⁾

〈표 5〉



다음 〈표 6〉은 교실에서 한국어 문법용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는 질문인 [Ⅱ 2]와 교실에서 한국어 문법용어를 영어로 대역한 것을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대한 것인 [Ⅱ 3]에 대한 결과인데, [Ⅱ 3]은 예를 들어 동사를 ‘verb’라고 하는 것, 모음을 ‘vowel’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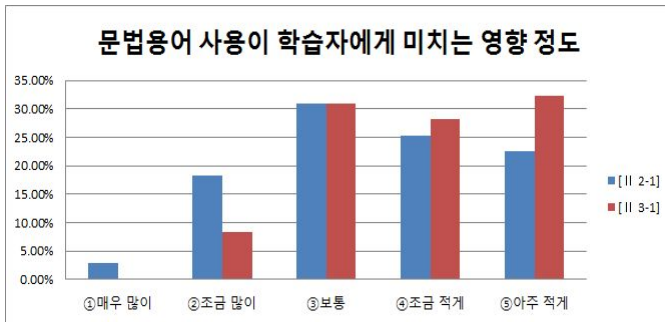


5) 한국어 교육문법과 학교문법의 체계가 달라야 함은 안주호(2011가)에서 다루고 있다.

이것은 교실 현장에서 문법용어를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묻는 질문으로, 여기에 대해 한국어 문법용어는 ‘조금 적게’ 36.7%와 ‘아주 적게’ 36.7%를 차지하여 모두 73%를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영어 문법용어로 설명하는 정도는 얼마큼인가를 묻는 질문에도 역시 ‘보통’ 이하가 90%를 넘는다. 이것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서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을 지향하고 있어, 문법 설명과 문법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양성과정에서 한국어 문법용어를 전반적으로 노출시키는 것과 의사소통 능력과의 상관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교수자들이 이에 따라 문법용어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다문화 센터에서 가르치고 있는 피조사자 중에는 한국어 지도사 등 한국어교육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양성과정 출신의 초년교사들이 많아 이러한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와 관련하여 문법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학습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인 [I 2-1], [I 3-1]의 응답에서는 <표 7>과 같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표 7>



6) 이것은 방성원(2011)의 결과와도 유사한데, 경력이 짧은 교수자일수록 의사소통 능력과 문법교육의 상관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경력이 짧은 초년 교사의 경우, 교육 현장에 들어오기 전 전공과정에서 이론을 공부할 때,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을 지향해 와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일관된 인식으로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문법 교육의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한국어 문법용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각각 [Ⅱ 2-1]과 [Ⅱ 3-1]의 결과는 <표7>과 같이 보였는데, [Ⅱ 2-1]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의견이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Ⅱ 3-1]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의견이 90%를 넘고 있다.⁷⁾ 이 결과는 학습자의 설문 결과와 매우 대조되는데, 학습자들은 교수자가 문법용어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를 사용하는 것이 학습의 효율을 높인다고 했다.⁸⁾ 이것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문법용어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한송화(2010)과도 같은 결과인데, 그의 연구에서도 교수자는 문법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이나 학습자들은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설문 결과에서도 학습자는 교수자의 문법용어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교수자는 현장에서 문법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3.3. 교수자의 한국어 문법용어에 대한 사용 양상

[Part Ⅲ]은 교실 현장에서 교수자가 평소 사용하는 문법용어를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복수 응답이 가능한 부분이다. [용어 1]은 한국어로 된 문법용어를 제시했고, [용어 2]는 영어로 대역된 문법용어를 제시했다.

7) 기타 의견으로는 급에 따라 다르고 특히 1급에서는 유용하다는 의견과 [Ⅱ 3]이 모국어가 영어일 경우 도움이 된다고 했다.

8) 학습자에게 한 질문으로 문법용어 사용이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가를 살폈는데, 한국어 문법용어를 그대로 설명한 것은 ‘It usually helps’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했고, 영어 대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81% 이상을 차지해 문법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It's vital	It helps a lot	It usually helps	It helps a little	It doesn't help much
[Ⅱ 3-1]	22.6% (12)	28.3% (15)	32% (17)	11.3% (6)	5.7% (3)
[Ⅱ 4-1]	5.7% (3)	45.3% (24)	30.2% (16)	17% (9)	1.9% (1)

〈표 8 : 수업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문법용어의 빈도〉

[용어 1]	빈도수	[용어 2]	빈도수
동사	70	verb	52
명사	67	noun	36
형용사	62	past tense	21
수사	9	present tense	21
미래시제	59	vowel	25
받침	43	future tense	20
과거시제	59	adjective	38
대명사	9	irregular verb	16
모음	51	consonant	21
관형사	9	regular verb	12
부사	31	basic form	18
자음	52	final consonant	8
현재시제	59	ending	9
형태	2	marker	7
유형	2	form	13
기본형	29	final consonant	8
규칙동사	32	syllable	6
어간	8	conjunction	3
어미	10	dictionary form	3
동화	3	particle	6
불규칙동사	50	pronoun	5
사동형	38	adverb	14
접속사	8	passive form	3
동작동사	16	aspiration	1
자음동화	2	pattern	4
피동형	39	suffix	2
상태동사	13	construction	35
조사	27	numeral	0
음절	1	consonant assimilation	5
격음화	4	causative form	2

[용어 1]	빈도수	[용어 2]	빈도수
경음화	4	tensification	0
접미사	3		
복합구성	0		
계사	3		

교수자들은 한국어 문법용어 중에서는 ‘동사 70 > 명사 67 > 형용사 62 > 미래시제 59, 과거시제 59, 현재시제 59 > 자음 52 > 모음 51 > 불규칙동사 50 > 피동형 39 > 사동형 38 > 규칙동사 32 > 부사 31 > 기본형 29 > 조사 27 > 동작동사 16 > 상태동사 13 > 어미 10 > 대명사 9, 관형사 9’의 순으로 많이 쓴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어 품사인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조사, 대명사, 관형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용언 중 활용을 하는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중요하므로 위와 같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시제 변화에 따른 용언 활용을 하므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여 미래, 현재, 과거 시제 등에 관한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영어 대역어 중에 사용하는 문법용어로는 ‘verb 52 > adjective 38 > noun 36 > construction 35 > vowel 25 > past tense 21, present tense 21, consonant 21 > future tense 20 > basic form 18 > irregular verb 16 > adverb 14 > form 13 > regular verb 12 > ending 9 > final consonant 8 > marker 7 > syllable 6, particle 6’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어 역시 품사와 시제, 규칙용언, 불규칙용언 등의 용어들이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교수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는 ‘표지, 복합구성, 계사’ 등이며 영어 문법용어로는 ‘copula, numeral, adnominal, assimilation, tensification, resyllabication’ 등이다.⁹⁾ 이 결과 영어 대역어를 훨씬 많이 선택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법용어의 출현빈도수와 비교해 볼 수 있다.¹⁰⁾ 한국어

9) 이 표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사용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주어, 목적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영어 용어로는 ‘object, subject’와 같은 용어가 있었다.

10) 안주호(2011년)에서 한국어 교재에서의 나타난 빈도수와 비교해 보면, 한국어 교재에서는 verb 1617 > stem 815 > noun 772 > ending 633 > form 517 > adjective

교재에서는 'stem, noun, ending, form, adjective, particle, suffix, marker, pattern' 등과 같이 용언의 활용과 조사사용을 나타내는 용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비해 교수자는 품사용어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한국어 교수자의 문법용어 영어 대역어 사용 양상

첨부한 설문지 [IV 부문]은 교수자의 한국어 문법지식을 측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법용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교수자들의 문법용어에 대한 이해도와 선호 용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고유의 문법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 위주의 내용으로 설문내용을 설계했으며, 교재에서 서로 다르게 대역되어 혼동을 초래하는 문법항목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 예를 들어 주어, 목적어 등은 다른 언어에도 존재하므로 이것의 대역어는 subject, object를 사용하는 데 이견이 없으나, 어미, 조사는 다른 언어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이것의 대역어는 교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IV 부문]의 [1-3]에서는 품사에 관한 것, [4-6]에서는 조사와 관련된 것, [7-11]에서는 어미와 관련된 것 그리고 [12-13]에서는 복합구성과 관련된 문법항목을 선택해 설문조사를 했다.

특히 [IV 부문]의 [1-3]은 한국어의 품사에 대한 논쟁 중인 용어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한국어에서 형용사, 관형사, 그리고 {이다}에 관한 것이다. 형용사는 영어로 대역할 경우 adjective이지만, 영어와 달리 동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활용하고 서술어로 쓰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형용사를 동사의 하위분류하여 상태동사라는 의미로 descriptive verb 혹은 stative verb, quality verb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¹⁾ 그런데 교수자 설문에서는 <표 9>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320 > particle 294 > suffix 116 > marker 116 > pattern 87 > pronoun 65 > construction 54 > adverb 52 > copula 34 > numeral 32 > conjunction 15 > adnominal 14'의 빈도를 보이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11) 한국어 교재 중 용언을 분류한 것을 보면, 고려대(1991)에서는 verb, adjective

〈표 9 : [1-3]의 대역어 선호도〉

	adjective	descriptive verb	quality verb	stative verb	기타	무응답
[IV 1]	39/61 (64%)	19/61 (31.1%)	1/61 (1.6%)	2/61 (3.2%)	0/61 (0%)	10명
[IV 2]	pre-noun 17/54 (31.5%)	determiner 13/54 (24%)	adnoun 13/54 (24%)	adjective 11/54 (20.4%)	기타 0/54 (0%)	17명
[IV 3]	copula 5/55 (9%)	to be 37/55 (67.3%)	descriptive particle 6/55 (10.9%)	ita/ida 4/55 (7.3%)	기타 3/55 (7.3%)	16명

즉 질문 [IV 1]의 ‘바쁘다’는 한국어 품사로는 형용사이나, 이를 형용사의 대역인 adjective를 쓸 경우, 동사와 같이 활용하여 서술어가 되는 한국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므로 교재에서는 형용사에 대응되는 영어 대역어를 adjective, descriptive verb, quality verb, stative verb로 설명하고 있는데, 교수자들은 이들 중 adjective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다음으로 descriptive verb를 선택했다.

질문 [IV 2]는 한국어 중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는 이에 맞는 직접 대응어는 없는 상태이다. 한국어 교재 중 하와이대(2000)에서는 pre-noun이라고 표기했고, 이외의 교재에서는 adnominal, 혹은 adnoun 등으로 대역하기도 하고 학술논저에서는 수식의 기능에 초점을 두어 determiner라고 대역하기도 했다. 그런데 본 설문 결과, 교수자들은 pre-noun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determiner와 adnoun이 각각 24%가 지적했고, adjective도 14%가 선택했고 무응답이 17명이었다. adjective을 선택한 것은 영어의 대응형인 ‘new’의 품사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무응

그리고 existence verb로 나누었고, 연세대(1992)에서는 동사를 action verb, 형용사를 quality verb로 나누었다. 서울대(1995)에서는 action verb, descriptive verb로 했으며, 경희대(2000)에서는 동사는 action verb, 형용사는 stative verb로 명명하였으며, 그 외에도 descriptive verb, ditransitive verb로 분류하고 있다.

답이 17명이나 된다는 것은 교수자들 역시 관형사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질문 [IV 3]은 {이다}는 학교문법과 한국어 교육문법의 설정에서 논쟁이 되는 것 중의 하나인데, 학교문법에서는 서술격 조사라 하여 descriptive particle이라고 대역한다. 교재 중에서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인 descriptive particle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경희대 2000), 비교적 최근에 나온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다}의 품사에 대한 논란을 접어 두고 'to be'로 설명하고 있으며, 하와이대(2000)에서는 계사의 대역어인 copula라고 했다. 이러한 {이다}를 영어로 쓸 경우 무엇이 적절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교수자는 <표 9>와 같이 답했는데, 'to be'형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Part IV의 [4-6]까지의 질문은 조사의 대역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문항 4]는 (주)격조사, [5]는 보조사, 그리고 [6]은 접속조사의 이해에 관한 것인데, 조사의 대역어로는 particle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marker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postposition, ending의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표 10: 주격조사의 대역어 선호도〉

	particle	marker	postposition	ending	기타	무응답
[IV 4]	33/64 (51.6%)	12/64 (31.3%)	9/64 (14%)	1/64 (1.6%)	1/64 (1.6%)	7명
[IV 4-1]	particle	subject particle	subject case particle	Others		
	0	27/33 (81.8%)	3/33 (9.1%)	3/33 (9.1%)		

{-이/가}와 같은 주격조사를 더 자세하게 지시한다면 어떤 용어가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subject particle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표 11 : 보조사와 접속조사의 대역어 선호도〉

[IV 5]	particle	determiner	non-case marker	special particle	auxiliary particle	기타	무응답
	28/62 (45.2%)	8/62 (12.9%)	12/62 (19.4%)	5/62 (8.1%)	5/62 (8.1%)	4/62 (6.5%)	9명
[IV 6]	particle	conjunctive particle	combining particle	marker	기타	무응답	
	0(0%)	36/59 (61%)	19/59 (32.2%)	3/59 (5.1%)	1/59 (1.7%)	12명	

보조사는 의미를 덧붙여 주는 조사로서, auxiliary particle로 대역된다. 실제로는 의미를 표시하는 조사여서, 교재에서는 {-은/는}을 topic particle이나 contrast particle로 설명하기도 하고, {-도}나 {-은/-는}을 particle이라고만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강대(2000)에서는 {-은/는, -도}를 marker로 옮기고 있으며, 한국외대(2007)에서는 {-은/는, -도}를 definitive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조사를 어떤 층위로 번역해야 할지는 한국어 교육문법 기술에서 논쟁거리 중의 하나인데, 보조사의 대표형인 {-은/는}의 대역어로 교수자들이 선택한 것은 〈표 11〉에서 보듯이 단순히 particle이라고 한 것이 45.2%, 격조사가 아님을 나타내는 non-case marker는 19.4%이며, 보조사를 나타내는 auxiliary particle과 determiner는 각각 8.1%로 나타났다. 접속조사는 {-와/과, -하고} 등 동등한 지위를 갖는 요소를 연결하는 것으로 교재에서는 접속조사 {-와/과} 등을 단순히 particle이라고 하기도 하고, conjunctive particle이라고 하거나, combining particle이라고 한 교재도 있으며, marker라고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교수자들은 conjunctive particle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

다음은 어미와 동사 활용의 용어에 대한 선호를 알아보았다. 어미를 영어로 옮길 경우 ending, ender, 또는 marker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어미와 관련된 문법용어를 크게 어말어미·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종결어미는 한국어 교재에서 final ending, verb ending, sentence ending, sentence-ender 등으로 표시했다.¹²⁾ 문항 [IV 7]부터는 어미에 해당되는 대역어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함인데, 문

항 [7]은 종결어미를 보여주는 것인데, 교수자들이 선호한 용어는 ‘ending > suffix > marker > ender’ 등으로 ending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표시할 때는 무엇이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에는 ‘sentence ending > declarative sentence final ending’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타로는 ‘verb ending, conjugation’ 등이 들어가 있다. {-어 서}와 같은 연결어미를 무엇으로 대역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게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ending > connecter > marker’ 등의 순으로 ending과 connecter가 높은 순위를 나타낸다. 이를 ending이라고 할 경우, 더 세밀하게는 무엇이 나온가 하는 질문에는 conjunctive ending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 12 :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의 대역어 선호도〉

[IV 7]	ending	suffix	eomi	marker	ender	기타	무응답
	39/60 (65%)	9/60 (15%)	0/60 (0%)	4/60 (6.7%)	4/60 (6.7%)	4/60 (6.7%)	11명
[IV 7-1]	ending	sentence ending	sentence final ending	declarative sentence final ending	기타	무응답	
	10/59 (17%)	16/59 (27.1%)	9/59 (15.3%)	15/59 (25.4%)	9/59 (15%)	12명	
[IV 8]	ending	suffix	connecter	marker	ender	기타	무응답
	25/60 (41.7%)	3/60 (5%)	19/60 (31.7%)	10/60 (16.7%)	0 (0%)	3/60 (5%)	11명
[IV 8-1]	ending	conjunctive ending	connective ending	기타			
	1/25 (4%)	14/25 (56%)	6/25 (24%)	4/25 (16%)			

- 12) 더 자세히 보면 서울대(1995)에서는 비교적 상세히 sentence ending, verb ending, sentence ending marker로 표기했다. 연세대(1992)에서는 종결어미를 sentence final ending 혹은 final ending, final verbal ending으로 표기하고, 몇몇의 경우에는 imperative와 같은 기능을 함께 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선어말어미인 {-시-, -었-, -겠-}은 모두 어말어미 앞에 선행하는 선어말어미인데, {-시-}의 경우는 suffix라고 하고, {-었-, -겠-}은 ending이라고 한 것은 기술에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어 교재에서도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는 infix, suffix, form, marker, pre-final ending 등으로 대역되어 혼돈스럽다.

〈표 13 : 선어말어미의 대역어 선호도〉

[IV 9]	ending	suffix	infix	form	marker	기타	미응답
	12/55 (21.3%)	5/55 (12.7%)	6/55 (10.9%)	28/55 (50.9%)	1/55 (1.8%)	1/55 (1.8%)	16명
[IV 10]	honorific ending	honorific suffix	honorific infix	honorific form	honorific marker	기타	미응답
	13/55 (23.6%)	10 (18.2%)	6/55 (10.9%)	18/55 (32.7%)	6/55 (10.9%)	2/55 (3.6%)	16명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의 대역어로 교수자는 〈표13〉과 같이 form을 가장 선호했으며, 다음으로 ending을 선택했고, 이외에도 기타에는 ‘past tense ending’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주체존대 선어말어미인 {-시-}는 위에서 보듯이 ‘honorific form > honorific ending > honorific marker > honorific suffix > honorific infix’의 순으로 역시 honorific form을 선호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honorific, formal’의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선어말어미를 form이라고 한 것은 이 형태소가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학교문법에서 전성어미라고 부르는 것에는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등이 존재한다. 교재 중 고려대(1991)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는}은 noun modifier ending으로 기술한 반면, {-(-으)ㄹ}은 imperfect tense adnominal ending으로 기술하고 있고, 서울대(1995)에서는 {-는, -ㄴ/은, -ㄹ/을}을 모두 noun modifier라고 하거나 noun modifier suffix라고 했지만 서울대(2000)에서는 suffix를 생략하고 noun modifier라고도 했다. 연세대(1992)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를 modifier ending이라고 했으며, 연세대(2007)에서는 adnominal ending으로 칭하고 있다

〈표 14 :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대역어 선호도〉

[IV-11]	adnominal ending	modifier	pre-noun ending	adnominal suffix	determiner ending	기타	무응답
	4/49 (8.2%)	15/49 (30.6%)	9/49 (18.4%)	4/49 (8.2%)	10/49 (20.4%)	7/49 (14.2%)	22명

그런데 교수자들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을 ‘modifier > determiner ending > pre-noun ending > adnominal ending, adnominal suffix’ 등의 순으로 선호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object particle, noun form, gerund form’ 등이 있는데, ‘object particle’이라고 한 것은 목적격 조사 {-을/를}과 혼동한 것으로 보이며, ‘gerund form’은 영어의 기능과 유사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noun form’이라고 한 것도 매우 특이한데,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붙인 듯하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는 무응답이 무려 22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교수자 스스로 관형사형 어미 {-은}을 무엇으로 대역할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보조용언인 {-고 싶-}와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구(句)인 {-을 것이-}의 영어 대역어로 선호하는 것은 〈표 15〉와 같다.

〈표 15 : {-고 싶-}구문과 {-을 것이-}구문의 대역어 선호도〉

[IV 12]	form	pattern	construction	auxiliary verb	기타	무응답
	12/57 (21%)	8/57 (14%)	15/57 (28.1%)	14/57 (24.6%)	7/57 (12.3%)	14명
[IV 13]	ending	suffix	form	pattern	expression	
	7/61 (11.5%)	4/61 (6.6%)	14/61 (23%)	6/61 (9.8%)	8/61(13.1%)	
	construction	marker	others	무응답		
	8/61 (13.1%)	4/61 (6.5%)	10/61 (16.4%)	10명		

[IV 13]항에 대해서는 {-고 싶-}을 영어 대역어로 할 경우, construction >

auxiliary verb > form 등이 주로 차지했다. 기타의견으로는 adverb를 선택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잘못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구(句인) {-을 것-}의 대역어로는 'form > expression > construction > ending > pattern' 등이 주로 차지했고, 기타 의견으로 'conjugation, future' 등의 의견이 있다. 이와 같이 구로 이루어진 구성을 영어 대역어로 제시할 때 일관된 용어가 필요하다.

4. 맺음말

이 글은 한국어 교육문법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 중 하나로 한국어 교수자의 문법용어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어 교수자의 문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주요 쟁점이 되는 문법항목의 영어 대역어에 대한 선호를 조사했다.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는 교수자 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주로 가르치는 외국인 학생의 모국어'는 영어권 7명, 중국어권 61명, 일본어권 7명 그리고 기타로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스페인 등으로 중국어권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학력 수준은 석사과정생 10명, 석사졸업 40명, 박사과정생 13명, 박사이상 4명이며, 학사 출신이 1명으로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자이다. 또한 한국어교육을 받은 곳은 대학부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 41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가능한 외국어는 영어와 중국어가 많았으며, 한국어교육 중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문법교육 > 어휘교육 > 문화교육 > 발음교육'의 순으로 나타나 문법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교수 시에 가르치기 어려운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쓰기, 발음, 문법'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으며, 수업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어로는 영어가 44명, 중국어 23명이며 기타로는 한자를 이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한국어 교수자의 문법에 대한 의식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 교실

현장에서 문법용어와 이것의 대역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는 질문에는 각각 ‘조금 적게’와 ‘아주 적게’가 70% 이상을 차지해서, 교수자들은 교실에서 문법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문법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학습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도 보통 이하의 대답이 80% 이상을 차지하여 문법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학습자의 결과와는 대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수자들은 한국어 교육문법이 학교문법과 동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한국어 교수 현장에서 교수자들이 평소 사용하는 문법용어를 선택 하도록 하였는데, 교수자들은 한국어 문법용어 중에서는 한국어 품사인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조사, 대명사, 관형사’ 등을 쓴다고 밝혔다. 용언 중 활용을 하는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중요하고, 시제 변화에 따른 용언 활용을 하므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여 미래, 현재, 과거 시제 등에 관한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사용하는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로는 ‘verb > adjective > noun > construction > vowel > past tense, present tense, consonant > future tense > basic form > irregular verb’ 등의 순위를 보이고, 교수자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는 ‘표지, 복합구성, 계사’ 등이며 대역어로는 ‘copula, numeral, adnominal, assimilation, tensification, resyllabication’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어 품사 중 대역어 논란이 있는 ‘형용사, 관형사, 이다’의 대역어에 대해 질문을 했다. ‘바쁘다’는 한국어 품사로는 형용사인데, 이것의 영어 대역어로는 교수자들은 adjective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다음으로 descriptive verb를 선택했다. 관형사의 경우는 pre-noun을 많이 선택했고, {이다}의 경우는 ‘to be’ 형을 가장 선호했다.

다섯째, 조사의 대역어로 교수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particle이며, 보조사와 접속조사 {-와/과} 등을 단순히 particle이라고 하기도 했다. 어미의 대역어로, 종결어미는 ending, 자세히는 ‘sentence ending’이 가장 많았으며, 연결어미 역시 ending, conjunctive ending이 높은 선택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선어말어미는 form을 가장 선호했으며,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을 modifier이라고 했으며, {-고 싶-}을 영어 대역어로 할 경우, construction이 많았으며,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구인 {-을 것-}의 영어 대역어로는 form이 높은 선택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 교육문법 사항 중 특성과 용어 선정에 쟁점이 되는 것을 교수자들의 의식과 더불어 선호도를 조사했다. 교수자들은 문법용어 사용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서 교육받아 문법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학습자에게 한 경우 학습자들은 문법용어 사용이 학습의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답하고 있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장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문법교육의 체계와 표준적인 한국어 교육문법, 그리고 용어의 표준화 작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한국어 교수자, 의식과 선호, 한국어 문법용어, 영어 대역어, 조사, 어미

<참고문헌>

- 강현화(2011),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의 현황과 전망」,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5-42면.
- 경희대 국제교육원(2000/2001), 『한국어 초급1, 2』, 경희대 출판부.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1986), 『한국어 1』, 고려대 출판부.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2008), 『한국어 1』, 교보문고.
- 김재욱(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내용 설정 연구」, 『문법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65-91면.
- 남기십·고영근(1993/2001),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민현식(2003),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상관성」, 『한국어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7-141면.
- 방성원(2011), 「문법 교육에 대한 한국어 교사의 인식 연구」,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87-211면.
- 백봉자(1999/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연세대 출판부.
- 서강대 외국어교육원(2000/2003), 『서강한국어 1, 2』, 서강대 출판부.
- 서울대 언어교육원(2000/2005), 『한국어 1』, 문진미디어.
- 안주호(2011가), 「한국어 교육문법에서의 용언 설명에 대한 양상 연구」, 『한글』 292, 한글학회, 131-159면.
- 안주호(2011나), 「한국어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에 대한 계량적 연구」, 『새국어교육』 80, 한국국어교육학회, 509-528면.
- 연세대 한국어학당(1992/1997), 『한국어1, 2』,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 한국어학당(2007), 『연세 한국어 1』, 연세대학교 출판부.
- 왕단(2008),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용어의 중국어 표준화 연구」, 『한글』 282, 한글학회, 277-215면.
- 이관규(2002), 『학교문법론』, 월인출판사.
- 이관규(2010), 「학교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성격과 내용 체계」, 『문법교육』 13, 한국문법교육학회, 29-56면.

- 정희정(2011), 「한국어문법교육방법론의 연구 동향 및 과제」,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481-506면.
- 한국외어 외국어연수평가원(1996/2007), 『한국어 1, 2』, 한국외대 출판부.
- 한송화(2010), 「한국어 문법용어 사용에 관한 교사·학습자의 인식 연구」, 『한국어교육』 2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61-392면.
- 홍윤기(2006), 「메타언어(Meta-language)를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론 연구」,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381-408면.
- Borg, S.(1999), The Use of Grammatical Terminology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 a Qualitative Study of Teacher's Practices and Cognitions. *applied Linguistics* 2-1, 95-126
- Borg, S.(2003), Teacher cognition in language teaching: A review of research on what language teachers think, know, believe, and do, *Language Teaching* 36, 81-109.
- Carter, R.(1990), *Knowledge about Language in the Curriculum : The LINC Reader*, London : Hodder and Stoughton.
- Eisentein, M. R.(1987), Grammatical explanations in ESL, *Methodology in TESOL : a Book of Readings*. New York : Newbury House.
- Ellis, G.(1998), Teaching and Research : Options in Grammar Teaching, *TESOL Quarterly* 32-1, 39-60.
- Hutchinson, T.(1987), *Using Grammar Books in the Classroom*. Oxford : Oxford University.
- Ihm, H. B., Hong, K.P., Chang, C.I.(2003), *Korean Grammar for International Learners*, Yonsei University Press.
- Larsen-Freeman.(2003), *Teaching Language*, Newbury House.
- Mohammed, A. M.(1996), Informal pedagogical grammar. *Inter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4-4 : 284-91.
- Sohn, Ho-min 외(2000), *Integrated Korean Advanced Intermediate* 1, 2, University of Hawaii Press. [하와이대(2000)라 약칭]

Ur, P.(1996), *A Course in Language Teaching :Practice and Theory*, U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Cognition and Preference of Korean Language Teachers about Using Korean Grammar Terms in English

Ahn, Joo-hoh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and preferences of Korean Language teachers about Korean Grammar terms in English through questionnaire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ndard Korean Education Grammar for KFL. First a detailed analysis is conducted on Korean Language teachers' needs for selection of Grammar terms and their English counterparts. They selected the terms related with the part of speech like verb and noun etc, and with the tense including present tense and past tense.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questionnaire Korean Language teachers hardly use Korean Grammar terms and moreover avoid using Korean Grammar terms. On the contrary, Korean Learners regard using Grammar terms as positive and effective Korean learning method. Korean learners have the tendency for benefit using Korean Grammar terms in classroom. Third, Korean Language teachers tend to have the opinion that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mmar is different from the School Grammar.

【Key words】 : Korean Language Teachers, Cognition and Preference, Korean Grammar Terms, English Equivalent, particle, ending

[첨부]

설문내용

안녕하세요? 본 설문 문항은 총 네 가지 유형이며 작성하는 데 약 10여분 정도 소요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실 설문은 한국어 문법에 관한 전문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며, 문법용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가를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표시해 주세요. 본 설문 조사 결과는 본 연구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Part I 다음 해당 사항에 √ 표기를 하거나 써 주세요.(이중 대답 가능)

1. 한국어 교육 경력 : 1년 미만 [], 1년-2년 [], 2년 이상 [], 3년 이상 []
2. 한국어를 가르친(가르치고 있는) 기관 : 대학 기관 [], 다문화센터 [], 개인교습 [], 해외 [], 기타 []
3. 주로 가르치는 외국인 학생의 모국어 : 영어권 [], 중국어권 [], 일본어권 [], 기타 []
4. 학력 : 석사재학생 [], 석사졸업 [], 박사과정생 [], 박사이상 []
5. 한국어교육을 받은 곳 : 평생교육원 한국어지도사 과정 [], 대학부설 한국어교원양성과정 120시간 [], 한국어교육학과 학부 [], 한국어교육과 석사과정 [], 한국어교육과 박사과정 []
6. 가능한 외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기타 []
7. 한국어 교육 중 관심 분야 : 발음교육 [], 문법교육 [], 어휘교육 [], 문화교육 [], 기능영역 중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타 []
8. 한국어를 가르칠 때, 어려운 영역 : 말하기 [], 듣기 [], 읽기 [], 문화교육 [], 기능영역 중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타 []
9. 한국어를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 한국어 발음 [], 한글 쓰기 [], 한국어 문법 [], 한국어 어휘 [], 기타 []
10. 수업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 영어 [], 일어 [], 중국어 [], 기타 []
11. 주로 사용하는 한국어교재는? : 서울대 교재 [], 연세대 교재 [], 고려대 교재 [], 경희대 교재 [], 이화여대 교재 [], 서강대 교재 [], 기타 []

Part II. 다음의 질문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각각 √ 표기 해 주세요.

1. 선생님은 학교문법과 한국어 교육문법이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동일해야 한다. ② 달라야 한다. ③ 상관이 없다. ④ 기타 []
2. 교실에서 한국어 문법용어를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① 매우 많이 ② 조금 많이 ③ 보통 ④ 조금 적게 ⑤ 아주 적게
- 2-1. 교실에서의 문법용어 사용이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많이 ② 조금 많이 ③ 보통 ④ 조금 적게 ⑤ 아주 적게
3. 교실에서 한국어 문법용어를 영어로 대역한 것을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예 : 동사를 'verb'라고 하는 것, 모음을 'vowel'이라고 하는 것 등)
 ① 매우 많이 ② 조금 많이 ③ 보통 ④ 조금 적게 ⑤ 아주 적게
- 3-1. 선생님은 교실에서 한국어 문법용어를 영어로 대역한 것이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많이 ② 조금 많이 ③ 보통 ④ 조금 적게 ⑤ 아주 적게

Part III.

1. 다음 용어 중 수업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으면 표시해 주세요.

동사, 명사, 수사, 관형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대명사, 어간, 어미, 형태, 상태동사, 동작동사, 조사, 접미사, 표지, 유형, 복합구성, 계사, 모음, 자음, 음절, 동화, 격음화, 경음화, 자음동화, 받침, 기본형, 불규칙 동사, 규칙 동사,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 피동형, 사동형

기타 []

2. 다음 용어 중 수업에서 사용하는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가 있다면 표시해 주세요.

verb, stem, noun, ending, form, adjective, particle, suffix, marker, pattern, pronoun, construction, adverb, copula, numeral, conjunction, adnominal, pre-noun, vowel, consonant, syllable, assimilation, aspiration, tensification, palatalization, consonant assimilation, liaison, resyllabication, final consonant(Batchim), basic form, dictionary form, irregular verb, regular verb, past tense, present tense, future tense, passive form, causative form.

기타 []

Part IV. 다음 항목의 적당한 영어 대역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1. “린다 씨가 바빠요.”에서 “바쁘다”의 품사는?
 ① adjective ② descriptive verb ③ quality verb
 ④ stative verb ⑤ 기타 []
2. “린다 씨는 새 책을 샀어요.”라는 문장에서 “새”의 품사는?
 ① pre-noun ② determiner ③ adnoun
 ④ adjective ⑤ 기타 []
3. “이진수 씨는 대학생이에요.”라는 문장에서 ‘-이에요’의 ‘이다’의 품사는?
 ① copula ② to be ③ descriptive particle
 ④ ita/ida ⑤ 기타 []
4. “린다 씨가 책을 읽어요.”라는 문장에서 “-가”의 품사는?
 ① particle ② marker ③ postposition
 ④ ending ⑤ suffix ⑥ 기타 []
- 4-1 위에서 ① particle이라고 할 경우 ‘-가’를 좀 더 자세히 영어로 대역하면?
 ① particle ② subject particle ③ subject case particle ④ 기타 []
5. “이진수 씨는 대학생이에요.”라는 문장에서 “-는”의 품사는?
 ① particle ② determiner ③ non-case marker
 ④ special particle ⑤ auxiliary particle ⑥ 기타 []
6. “딸기하고 우유를 샀어요.”라는 문장에서 ‘-하고’의 품사는?
 ① particle ② conjunctive particle ③ combining particle
 ④ marker ⑤ 기타 []
7. “린다 씨가 책을 읽어요.”라는 문장에서 “-어요”는?
 ① ending ② suffix ③ eomi ④ marker ⑤ ender ⑥ 기타 []
- 7-1 7에서 “-어요”를 ① ending이라고 할 경우, 더 자세하게 영어로 대역하면?
 ① ending ② sentence ending ③ sentence final ending
 ④ declarative sentence final ending ⑤ 기타 []
8.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해요.” 라는 문장에서 ‘-아서’는?
 ① ending suffix ③ connector ④ marker ⑤ ender ⑥ 기타 []
- 8-1 8에서 ‘-아서’를 ① ending이라고 할 경우, 더 자세하게 영어로 대역하면?
 ① ending ② conjunctive ending ③ connective ending ④ 기타 []
9. “어제 도서관에 갔어요.”라는 문장에서 ‘-았-은?’
 ① ending ② suffix ③ infix ④ form ⑤ marker ⑥ 기타 []
10. “선생님께서 들어오십니다.”라는 문장에서 ‘-시-’는?
 ① honorific ending ② honorific suffix ③ honorific infix
 ④ honorific form ⑤ honorific marker ⑥ 기타 []
11. “어제 먹은 음식은 삼계탕이에요.”에서 ‘먹은’의 ‘-은’은?

- ① adnominal ending ② modifier ③ pre-noun ending
④ adnominal suffix ⑤ determiner ending ⑥ 기타 []
12. “물을 마시고 싶어요.”에서 ‘마시고 싶어요’의 ‘-고 싶다’는?
① form ② pattern ③ construction ④ auxiliary verb ⑤ 기타 []
13. “내일은 비가 올 거예요.”에서 ‘올 거예요’의 ‘-(으)ㄹ 거-’는?
① ending ② suffix ③ form ④ pattern ⑤ expression
⑥ construction ⑦ marker ⑧ 기타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주호

순천향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초빙교수

(336-745)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전자우편 : ahnjh@sch.ac.kr

이 논문은 2012년 1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3월 4일에 심사 완료
되어 3월 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